

<월간조선> [비교연구]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 對 인천 차이나타운 (2007년 11월 호, 94-109)

100년의 역사를 가진 두 곳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 정문(왼쪽), 인천차이나타운 정문(오른쪽).

지난 8월 말, 휴가차 3박 5일간 방콕에 다녀왔다.

사흘째 되는 날, 방콕 와오와랏트 거리에 있는 차이나타운을 방문했다. 방콕의 차이나타운이 관광명소 중 하나라고 들은 터였다.

금색과 빨간색으로 화려 쓴 중국 간판, 귀금속 상점, 길거리 리어카 음식 등이 즐비했다. 도로에 뺨뺨하게 늘어선 자동차의 매연은 나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사람 두어 명이 겨우 지날 만한 좁은 골목과 쓰레기가 널린 길거리를 보며 중국의 더러운 뒷골목이 떠올랐다.

포장마차에서 꼬치구이를 먹어 보려다, 포기했다. 타국에서 배탈이 나고 싶지는 않았다.

「차이나타운은 왜 이렇게 복잡하고 더러워야만 할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서울로 돌아와 몇몇 나라의 차이나타운에 대해 알아보다가 2000년부터 인천 차이나타운이 새단장 中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인천의 월미도 인근에 위치한 차이나타운은 1900년경 華僑(화교) 2000여 명이 모여 살면서, 중국인 경제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고 한다. 총 면적은 3만 6000m²(약 1만 890평).

인천은 이 지역에 대해 대대적인 리노베이션을 하는 중이다.

문득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차이나타운과 비슷한 처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은 100여 년 이상의 역사에, 기존의 중국인들이 살던 곳을 새롭게 리노베이션한 곳이다. 총 면적은 현재로서는 인천보다 5배 정도 넓다.

한때 똑같은 榮華(영화)를 누렸던 두 차이나타운은 현재 전혀 다른 모습이다.

東西洋의 조화



샌프란시스코의 깔끔하게 정리된 차이나타운 거리.

지난 9월 2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최고 번화가인 유니언스퀘어에 내렸다. 샌프란시스코는 바람이 많이 부는 편인데, 이날은 어쩐 일인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유니언스퀘어 주차장에 붙어 있는 안내 지도판에서 쉽게 「차이나타운(CHINA TOWN)」을 찾았다. 위치를 보니, 유니언스퀘어 바로 옆인 것 같았다.

차이나타운은 보통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외곽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샌프란시스코 번화가 한복판에 있다는 것이 조금 낯설었다. 행인에게 「걸어서 갈 만한 거리냐」고 물었더니, 『아주 조금만 걸어가면 된다』고 했다. 주변은 온통 쇼핑몰과 금융 건물뿐인데 대체 어디에 있다는 것인가.

유니언스퀘어에서 5분 정도 걸어 그랜트 거리를 지나 부시애비뉴에 다다르자, 갑자기 고층빌딩 사이로 중국 간판이 보였다. 차이나타운 정문이었다. 횡단보도를 사이에 두고 10m 아래는 프랑스 명품 상점, 10m 위는 중국 가게가 늘어서 있었다. 샌프란시스코 도심 한복판에 동·서양이 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차이나타운 입구에서부터 끝까지 이어진 南北은 평지고, 거기에서 양옆으로 뻗은 東西 도로는 비탈길이었다. 입구에서는 차이나타운의 끝이 보이지 않았다. 초입부터 중반까지는 중국의 잡화점·茶(차) 가게, 샌프란시스코 기념품점들이 있었고, 중반 이후부터는 레스토랑이 많았다.

관광객이 거의 없어



...계속